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윤



키움증권

미 증시, 반도체주 반등에도 금리 급등 부담 등으로 약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9일(화) 미국 증시는 마이크론(+2.5%), 샌디스크(+3.8%) 등 직전일 급락했던 반도체주의 반등, 밴스 미 부통령의 이란 협상 진전 발언에 따른 유가 하락에도, 미국 시장금리 급등 부담이 지속된 여파로 장중 변동성 장세를 겪으면서 하락 마감(다우 -0.7%, S&P500 -0.7%, 나스닥 -0.8%).

이번 주 들어 주식시장은 금리 상승이라는 매크로 불안에 노출되면서, 주가 흐름이 취약해진 상태. 전일 미국 10년물 금리는 4.67%대를 돌파한 가운데, 30년물 금리는 5.19%대까지 오르면서 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의 뉴스플로우의 중심은 전쟁, 실적보다는 금리 변화로 옮겨간 모습.

과거 금리 발작기(22년 연간, 23년 10월 등)에 비해 주요국 증시의 이익 체력이 높아진 점은 금리 상승에 따른 할인율 부담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일 수 있음. 다만, 이미 5월 초 급등 랠리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실적시즌 모멘텀을 소진시켰다는 점이 최근 금리 급등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를 고려 시, 내일 새벽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이 단기 분위기 전환점이 될 전망. 전세계 대장주 답게, 1) 매출액, GPM 등 실적과 수익성 가이던스의 컨센서스 상회 여부, 2) 중국향 H200 매출 신호 여부, 3) 실적 발표 직후 셀온 여부 등 시장의 요구 조건이 많은 상황임. 하지만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의 결과만 나오더라도, 매크로 불안을 일정부분 상쇄시켜줄 수 있다는 점을 대응 전략에 반영해 놓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씨게이트 CEO의 병목현상 언급으로 인한 미국 반도체주 약세 속 미 10년물 금리 상승, 달러/원 환율 상승 등 대외 부담 속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로 5%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으나, 이후 낙폭 과대 인식 속 개인 순매수 확대에 힘입어 낙폭을 일부 만회한 채 마감(코스피 -3.3%, 코스닥 -2.4%).

금일에도 “미국 금리 상승 등 매크로 불확실성, 외국인 수급 불안 vs 마이크론 등 반도체주 반등, 전일 급락에 따른 기술적 매수세 유입”과 같은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면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

현재 코스피는 증가 기준으로 지난 5월 14일 고점 대비 약 8.9% 하락하면서, 단기 추세선인 20일선(7,070pt)을 위협 받고 있는 모습. 물론 직전일에 이어 전일에도 개인의 대규모 순매수로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단기 조정의 주요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점이 고민거리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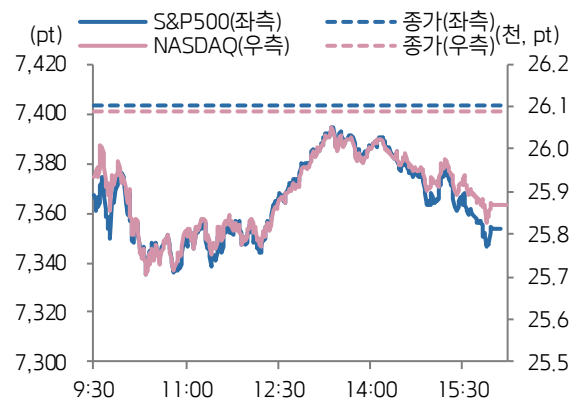
올해 외국인의 누적 순매도 금액은 약 91조원으로 금융위기(07년 -27조원 + 08년 -35조원 = 62조원), 코로나 팬데믹(20년 -25조원) 등 과거 대형 위기 당시보다 더 강도 높은 순매도를 단행. 더욱이 이들의 역대 1위급 순매도에도, 보유 시가평가액 대비 코스피 시가총액으로 계산한 지분율은 연초 35%대에서 현재 38%대로 오히려 늘어난 것도 신경 쓰이는 부분. 이는 매도 금액보다 기존 보유 종목의 시가 평가액이 더 크게 늘어난 영향에서 기인.

동시에 외국인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유주식수가 줄었다는 것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차익실현이 집중됐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대목. 이들 순매도가 차익실현에 가깝다는 것은 5월 19일 공개된 BofA Global Fund Manager Survey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해당 서베이 상 가장 쓸림현상이 심한 거래(전략) 1순위로 5월 현재 “글로벌 반도체 매수(응답률 73% vs 4월 24%)”가 지목됐기 때문.

결국, 미국 10년물 금리 급등, 달러 강세 등 매크로 부담이 커진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 사이에서 위험 헤지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 가능. 그 과정에서 연중 쓸림현상 심화로 주가가 폭등했던 “반도체 매도 후 현금 확보”라는 단기 전술적 차익실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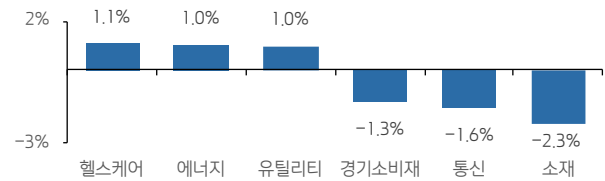
물론 아무리 차익실현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순매도 페이스가 빠르다는 점은 개인, 기관의 투심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에, 이들의 순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가 중요한 시점. 이런 측면에서 1) 내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을 통한 매크로 불안 상쇄 여부, 2) 미국 10년물 금리 급등 진정 여부가 이번주 남은 기간 증시 방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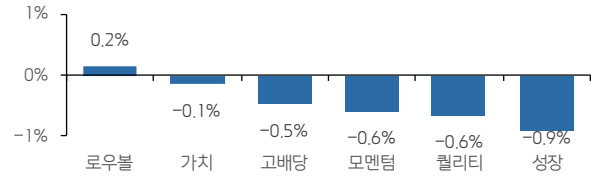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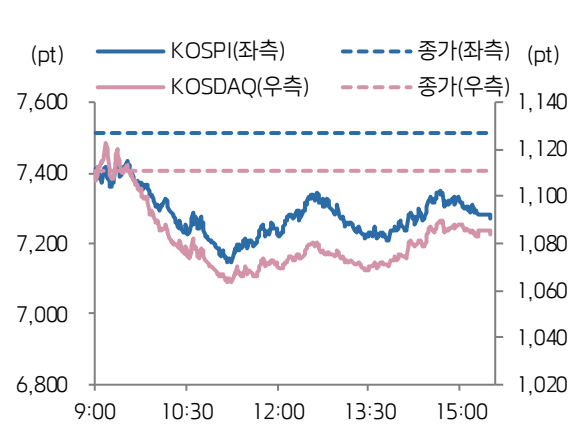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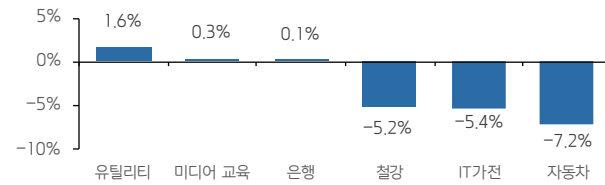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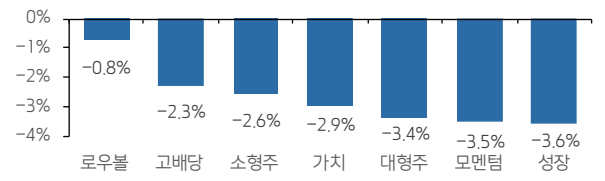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증가	DTD(%)	YTD(%)	종목	증가	DTD(%)	YTD(%)
애플	298.97	+0.38%	+9.97%	GM	72.63	-0.64%	-10.69%
마이크로소프트	417.42	-1.44%	-13.69%	일라이릴리	1,021.41	+3.37%	-4.96%
알파벳	387.66	-2.34%	+23.85%	월마트	134.20	+0.64%	+20.46%
메타	602.61	-1.41%	-8.71%	JP모건	295.70	-1.67%	-8.23%
아마존	259.34	-2.08%	+12.36%	엑손모빌	162.55	+1.28%	+35.08%
테슬라	404.11	-1.43%	-10.14%	세브론	197.25	+0.58%	+29.42%
엔비디아	220.61	-0.77%	+18.29%	제너럴일렉트릭	134.20	+0.6%	+20.5%
브로드컴	411.07	-2.29%	+18.77%	캐터필러	860.15	-0.44%	+50.15%
AMD	414.05	-1.65%	+93.34%	보잉	215.01	-2.54%	-0.97%
마이크론	698.74	+2.52%	+144.82%	넥스트에라	90.06	+1.1%	+12.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7,271.66	-3.25%	+72.55%	USD/KRW	1,508.70	+1.06%	+4.81%	
코스피200	1,132.42	-3.32%	+86.87%	달러 지수	99.30	+0.11%	+0.99%	
코스닥	1,084.36	-2.41%	+17.17%	EUR/USD	1.16	-0.44%	-1.2%	
코스닥150	1,823.80	-2.22%	+17.87%	USD/CNH	6.82	+0.26%	-2.28%	
S&P500	7,353.61	-0.67%	+7.42%	USD/JPY	159.07	+0.16%	+1.51%	
NASDAQ	25,870.71	-0.84%	+11.31%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9,363.88	-0.65%	+2.71%	국고채 3년	3.750	-0.7bp	+79.9bp	
VIX	18.06	+1.35%	+20.8%	국고채 10년	4.205	-4.2bp	+82bp	
러셀2000	2,747.07	-1.01%	+10.68%	미국 국채 2년	4.118	+7.4bp	+64.5bp	
필라. 반도체	11,305.50	+0.03%	+59.61%	미국 국채 10년	4.666	+7.9bp	+49.9bp	
다우 운송	20,161.07	-0.28%	+16.15%	미국 국채 30년	5.181	+5.8bp	+33.7bp	
상해종합	4,169.54	+0.92%	+5.06%	독일 국채 10년	3.193	+4.5bp	+33.8bp	
항생 H	8,639.96	+0.49%	-3.07%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5,200.85	-0.15%	-11.76%	WTI	104.15	-0.22%	+82.59%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111.28	-0.73%	+82.88%
Eurostoxx50	5,851.16	+0.04%	+1.03%	금	4,511.20	-1.03%	+2.37%	
MSCI 전세계 지수	1,091.79	-0.59%	+7.61%	은	74.83	-2.91%	+5.98%	
MSCI DM 지수	4,717.73	-0.47%	+6.49%	구리	616.50	-1.71%	+8.5%	
MSCI EM 지수	1,638.75	-1.45%	+16.69%	BDI	3,092.00	-1.87%	+64.73%	
MSCI 한국 ETF	174.02	-1.18%	+79%	옥수수	475.25	-0.37%	+4.57%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667.25	+0.41%	+25.6%
비트코인	76,963.40	+0.14%	-12.19%	대두	1,209.50	-0.29%	+12.59%	
이더리움	2,116.92	+0.04%	-28.91%	커피	270.15	+2.25%	-17.1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5월 19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